

민생법안 처리 집중 vs 교과서 국정화 중단... 성과 난망

朴대통령-여야 지도부 오늘 '5자 회동'...정국 분수령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은 연말 정기국회 정국의 향로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나라 전체에 '전선'이 형성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가 청와대 회동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 정국을 정상화할지, 아니면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결과를 낳으면서 정기국회 예산·법안 심의가 파행으로 흘러갈지 갈림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과는 글썽? = 21일 현재로서는 부정적 전망이 일반적이다. '사관(史觀)'에 대한 여야의 간극이 큰 만큼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청와대와 여당, 야당은 회동을 하루 앞둔 이날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

청와대는 5자 회동에서 그동안 밀린 '민생법안' 처리에 논의를 집중하고 이미 행정 절차에 들어간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먼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 방침을 분명히 드러냈다. 새누리당 역시 정기국회 예산·법안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당정의 굳건한 공조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문제로 박 대통령을 강력히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각오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 역시 강한 만큼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이다.

◇과거 회동에서도 성과는 없어 = 사실 지난 몇 번의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에서도 성과라고 할만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취임 첫해인 지난 2013년부터 청와대와 국회를 번갈아가면서 만남을

'국정화' 입장차 커 충돌 불가피 연말 예산·법안 심의 파행 가능성 과거 수차례 회동도 대부분 빈손

이어왔다. 그때마다 막힌 국정의 매듭을 풀기 위한 중대 분수령으로 기대를 모으곤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7일 새누리당 김부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박 대통령의 중도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 도약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데 대해 문 대표가 "총체적 위기"라며 정부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양측의 대립각만 날카로워졌다.

지난해 10월29일에는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김 대표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이완구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1시간 동안 만났다. '덕담'이 오가는 화기에 애환 자리였지만, 정작 현안과 관련해선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정도에만 의견이 모아졌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7월10일에도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 주호영,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여야 원내지도부 4명을 청와대로 초청, 의견을 교환했다. 당시 회동 이후 야당은 '부적격' 낙인을 찍은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곧바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국은 급랭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16일에도 국회에서 황우여, 김한길 대표를 만났으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채용공고 검찰총장 사의 표명 등 여야가 강경 대치하던 사안은 전혀 풀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과서 예산 결산 농친 새정치 교육부 예산 삭감 나서

내년 8891억 특수활동비도 삭감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예비비로 우회 추진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맞서 교육부의 기본 경비 대폭 삭감에 나서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부도에 이어 역사 부도를 일으키려는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내년도 140억원에 달하는 교육부 기본경비 대폭 삭감 방침을 밝혔다. 또, 내년도 8891억원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확인해 애초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고, 대신 집행과정이 투명한 업무추진비, 특검업무경비 등 타비목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친일독재 미화, 민주주의 후퇴에 검찰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고 있다"며 "특수 활동비 전면공개로 시작으로 해서 특수 활동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타당성이 결여됐음에도 대통령 관심 예산이라는 이유로 과다 편성된 사업에 대한 대폭 삭감 방침도 세웠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경우 603억원에서 766억원으로 26.9% 증액돼, 내년도 총 예산 증가율이 3.0%로 역대 최저치였던 데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초특가 일본여행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 ~ 12월 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 출발

스케줄 : 무안(0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 항공기 :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비행기로 399,000원에 간다!~

(선착순 30명 한정)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3일	459,000원 549,000원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4일	649,000원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J,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칸몬대교를 건너서 이와쿠니로 이동 ▶ 일본전통 돌다리 킨타이로 관광 ▶ 이초쿠시마 신사 앞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미야지마 오도리이 ▶ 미야지마의 상징이며 일본 국보인 이초쿠시마 본전 ▶ 미야지마 오츠크담 , 다카부타이 ▶ 호텔[기타큐슈 1급호텔]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J,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칸몬대교를 건너서 이와쿠니로 이동 ▶ 일본전통 돌다리 킨타이로 관광 ▶ 이초쿠시마 신사 앞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미야지마 오도리이 ▶ 미야지마의 상징이며 일본 국보인 이초쿠시마 본전 ▶ 미야지마 오츠크담 , 다카부타이 ▶ 전통 온천호텔 또는 비니지스호텔(2인1실) 투숙 및 온천욕	
2일차 히노야마 전망대 ▶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 아카마신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춘분루 ▶ 카르스트 지형으로 아름다운 히라오다이 트레킹(동굴포함) ▶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서양식 건물들이 모여 있는 모지코 레트로 ▶ 일본 3대 야경으로 불리는 사라쿠야마 야경 ▶ 기타큐슈공항 비니지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2일차 일본 유신의 고장! "무사의 거리 요시다 쇼인의 신사" ▶ 다리교각과 바다가 아름다운 "즈노시마등대" 자유시간 ▶ 히노야마 전망대 관광 ▶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 아카마신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춘분루 ▶ 비니지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3일차 카르스트 지형으로 아름다운 히라오다이 트레킹(동굴포함) ▶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서양식 건물들이 모여 있는 모지코 레트로 ▶ 자연사박물관 관광 ▶ 일본 3대 야경으로 불리는 사라쿠야마 야경 ▶ 기타큐슈공항 비니지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4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늘 곁에 두고 쓰는 물건에 예술적 즐거움을 입히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132) 멘디니

".../허리가 아프니까/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꽃도 열매도, 그게 다/의자에 앉았는 것이여//...사는 게 별거냐/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의자 몇 개 내 놓는 거여." <이정록 작 '의자' 중에서>

허리가 아픈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곳에서든 의자를 만나면 한번 앉아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어쩌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신세지는 가구가 의자이기 때문에 멋지고 안락한 의자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 의자에 파묻히고 싶어 하는 것이다.

지난 15일 개막한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11월13일까지 전시) 전시장 초입에서 우리를 반기는 것은 건축가이자 산업디자이너인 알렉산드로 멘디니(1931~)의 '프루스트 의자'(2015년 작)이다. 거장의 작품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무늬도 쓰다듬어보고 싶고, 오래오래 앉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존재했던 의자에 고급성 전통미공예가의 한국적인 조각보를 덧입힘으로써 더욱 친밀감을 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디자인이 기능적이고 상업적인 틀을 넘어 '가치'와 '감수성'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멘디니 작 '프루스트 의자'

꿈 이끈 '벤피스 운동'의 창시자로 멘디니를 기억하지만, 보통은 발레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와인 오프너 '안나 G'처럼 늘 곁에 두고 사용하는 물건에 예술적 즐거움을 입히는 디자이너로 손꼽힌다. 팔손을 넘긴 할아버지임에도 소년 같은 천진난만함이 가득하기에 밝고 화사한 색감과 우머감각을 디자인에 담아낼 수 있는 것 같다.

까르띠에, 스와로브스키, 스와치 등 세계적 기업은 물론 국내에서도 롯데 카드, LG전자 등과도 함께 작업하고 있는 멘디니는 우리 광주와도 인연이 깊다.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의 조형물로 광주시정 광장의 '미래도시 광주 : 기원'을 설치한데 이어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로 광주송정역에 캐노피 '빛의 꽃'을 디자인해 내년 4월에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